

# 구한말 제주 문인 海隱 金羲正의 삶과 문학

김새미오\*

- I. 서론
- II. 해은 김희정의 삶과 교유
- III. 해은 김희정의 문학 양상
  - 1. 화서학맥의 제주 계승
  - 2. 제주지역에서의 교학활동
  - 3. 제주자연의 형상화
- IV. 결론

## 국문요약

본고는 구한말 제주 지식인 해은 김희정의 삶과 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은은 제주도 조천에서 태어난 구한말 제주지식인이었다. 그의 집안은 이속층이었지만, 후에 유림층으로 성장하였다. 해은은 제주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다가 제주도에 유배온 면암 최익현을 통해 성리학과 위정척사사상을 익혔고, 이후 ‘화서-면암’의 학통을 계승하는 제주도의 대표인물로 성장한다.

해은문학의 특징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면암 최익현을 만나 제주에서 화서학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제주도 지식인 중에서 해은처럼 학맥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화서학맥과 노사학맥의 경우 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제주 교학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말

---

\* 태동고전연구소 전임연구원.

기로 오면서 제주도의 삼천서당·굴림서원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해은은 삼천서당에 노봉홍학비를 세우고, 오현단에서 오현에 대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역할을 제고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사회의 사표이자 리더로서 해은이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사람에 의한 교학 활동이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유배인을 중심 교학활동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주자연에 대한 형상화를 들 수 있다. 해은의 「한라산기」는 한라산을 오르는 흥과 함께 당시 암울한 시대상황이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면암 최익현의 「한라산기」를 문학적으로 계승하는 성격을 지닌다. 해은의 「영주십경」은 매계 이한우의 문학을 계승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주 자연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문인들이 품제한 바 있다. 해은의 품제는 제주 사람이 직접 읊었다는 것 외에도 전대의 문학적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해은 김희정, 면암 최익현, 영주십경, 제주오현.

## I. 서론

제주도라는 곳은 참 독특한 곳이다. 풍속, 언어, 문화 등등이 모두 본토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제주학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문학에 있어 제주학 연구의 난점은 자료에 있고, 특히 문헌학을 위주로 하는 고전문학 분야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다. 어쩌다 자료가 확인되면 이런 저런 부차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설명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자료가 없다고 아쉬워할 겨를은 없다.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시점부터라도 차분히 연구를 축적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제주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학 분야로 한정한다면, 제주도에 관련된 문인은 “유배문인-관각문인-제주문인”의 세 층위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이중 유배문학에 대해서 비교

1) 소재영, 「漢文學과 濟州文學」, 『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적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토리텔링 등으로 변화하면서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비해 관각문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제주문인의 경우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제주문인인 경우 제주도 지식인의 계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참 아쉬울 뿐이다.

본고는 구한말 제주 지식인이었던 海隱 金義正(1844~1916)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해은은 제주도 조천 출신으로, 면암 최익현이 유배왔을 때에 면암을 따라 배웠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희정의 문집인 『海隱文集』이 확인된 것은 2012년이다. 이 해에 김익수와 김일우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주도 문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은 김희정 후손가에서 전해지는 문헌을 확인하였다. 해은 김희정 후손가 문헌을 살펴본 후, 김일우는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제주시 김기홍 맥 소장 고문서·고서자료를 중심으로」<sup>2)</sup>를 작성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 이 글이 해은 김희정을 중심에 둔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일우는 이 글에서 해은 후손가에서 소장된 문헌을 소개하고, 해은 집안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였다. 김일우는 4대에 걸친 해은 집안의 자료를 통해 그의 집안이 조천리 토착세력과 그 위상을 유지하면서 유림층으로 나아갔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향리층에서 유림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해은 집안에 대한 해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는 해은 집안에서 전해지는 고문서과 고도서를 목록화하여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고서 1395건으로, 필사본 고서와 고문서 275건, 인쇄도서 1120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문건이 확인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소중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은 집안의 이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웹으로 제공하고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일부가 책으로 간행된 바도 있다.<sup>3)</sup>

241-254쪽.

2) 김일우,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281쪽.

3) 『고문서집성』 110, 「제주고문서 조천김해김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해은 집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백규상은 『해은문집』을 번역하고, 아울러 간략한 해제를 수록하였다.<sup>4)</sup> 백규상은 해제에서 문집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간단한 생평을 기술하였다. 백규상의 번역은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갖는다. 본고의 해석은 백규상 번역본을 중심으로 수정하면서 소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지금까지 김희정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그의 스승이었던 勉庵 崔益鉉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면암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소백 안달삼과 부해 안병택에 관한 연구에서 부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현대문학 분야에서 김희정의 손자인 김지원에 대해 김병택, 김동윤의 간단한 언급이 있었다.<sup>5)</sup>

기존 연구는 김희정이란 인물을 직간접적으로 학계에 소개했다는 자체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해은의 간단한 생평이 소개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 또 해은의 교유관계 등을 보다 치밀하게 천착하면서 해은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해은은 문학적으로 뛰어났다는 인물평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에 해은의 문학적 내용을 확인하고, 그 속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은 김희정의 삶과 문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해은의 삶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유관계까지 확대시켜 그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 문학연구로 들어가서 『해은문집』에 나타나는 그의 문학적 성과를 분석하고 그 위치를 고민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도 문인과 지식인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4) 백규상역, 『海隱文集』, 제주문화원, 2015.

5)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II. 해은 김희정의 삶과 교유

심재 김석익은 그의 저서 『心齋集·破閑錄』 중에서 제주의 문장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탐라의 문장은 처음에는 僕射 高維·平章 高兆基·學士 高適에게서 발휘되었다. 高維의 학문은 들을 수 없고, 高兆基·高適은 시 약간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를 잇는 인물들은 判尹 高得宗·中樞 高台弼·壯元 高台鼎·教授 金良弼과 나의 선조 金晉鎔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저술이 모두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 외에 典籍 高弘進·谷城 文榮後 같은 이는 각각 능한 바로 근세에 이름을 떨쳤다. 參判 鄭希寬·縣令 吳廷賓·海南 高萬瞻·歙谷 張漢喆·參判 金命獻·賓興 梁擎天·義士 吳興泰·司成 夫宗仁·萬頃 邊景鵬·掌令 高鳴鶴·生員 吳霽·掌令 金英業·學士 吳鳳祚·學士 梁觀·進士 吳泰稷·進士 金龍徵·梅溪 李漢震·小柏 安達三·參奉 金義正·教授 高性謙들도 모두 뛰어난 이들이다. 그 나머지 문단에 이름이 있는 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sup>6)</sup>

인용문에서 심재 김석익은 제주의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제주지식인의 계보와 다름없다. 인용문의 말미에 김희정 역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金義正(1844~1916)은 字가 佑卿이고 호가 海隱·蒲葵이며 본관은 金海다. 이름은 金義鼎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심재 김석익의 「탐라인물고」에는 勉菴 崔益鉉을 사사하였고, 널리 배우고 시를 잘 지었고, 庚寅(1890)년에 처음으로 參奉의 벼슬을 지냈다<sup>7)</sup>고 하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제주도 조천리에 살았다.

김희정은 1844년 金性休(1804~1851)와 전의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해은의 아버지 김성휴는 고질병이 있는 해은의 할아버지를 모시면서도 학문을 닦았고, 經書와 史書를 두루 살폈고 時文도 지었지만, 과거는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항상 學契의 有司가 되었다고 하니, 당시 지식인 사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은의 교육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집안 환경을 통해 해

6) 『심재집』, 「파한록 상·탐라인문」.

7) 『심재집』, 「탐라인물고·김희정」.

은은 17세때 승보시에 합격하고, 성균관 接生으로 생활한 적도 있다. 하지만 김성휴는 이런 아들 해은에게 과거 공부보다는 스승을 택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주지시켰다. 아버지의 이 충고로 인해, 어려서부터 과거를 준비했던 해은이 과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면암을 만나고 따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에 해은은 “나는 이미 집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문자를 거칠게나마 해득할 수 있었는데,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결국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勉菴선생의 문하에서 물 뿌리고 마당을 쓰는 일을 하며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 道와 理氣說을 들을 수 있었다.”고 돌아보았다.<sup>8)</sup> 이로 보건대 해은의 아버지인 김성휴는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그의 생각은 아들인 해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은은 8살 때 천자문을 시작했고, 12살에 조천리 옆인 신촌리에 사는 梅溪 李漢鎭(1823~1881)를 배웠다. 매계 이한진은 일명 李漢雨라고도 하는데, 추사 김정희가 유배왔을 때 찾아가 수학한 바 있고, 시문에도 능숙하였다.<sup>9)</sup> 제주영주십경은 매계가 지은 작품인데, 이 시에 대해서 蘭谷 金亮洙·蒲葵 金義正·劉襄菴·金瀛雲·金蓮陂·李容植 등이 차운하였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매계는 姜悌儉의 난 때에 창의격문을 유림들에게 돌려서 충의로운 뜻을 알렸고, 면암이 유배왔을 때에도 만났다. 이한진은 당시 제주사회의 師表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인물이며, 제주 문인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신촌초등학교에는 「매계선생유허비」가 있는데, 이 비석에는 매계 이한진의 대표적인 제자로 金義正·安達三·李啓徵이 기록되어 있다.

14세(1857) 때, 조천리 백동출신 尹奎館(1807~?)에게 맹자를 배우고, 그의 아들 尹祉福(1834~?)에게도 배웠다. 17세(1860) 때, 승보시에 합격을 하였다. 21세(1864) 때, 서울로 올라가서 전 참판 陸仁培를 만나고, 아들 陸裕錫에게 배운다. 목인배를 찾아가게 된 것은 매계 이한우와의 인연으로 보인다. 매계가 제주목사로 왔던 목인배에게 인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런 인연으로 목인배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희

8) 『海隱文集』, 「先府君實蹟」; 「先妣孺人李氏實蹟」.

9) 『심재집』, 「탐라인물고·이한진」.

정이 매계 이한진의 고제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8세(1871) 때, 아버지 김성휴가 죽었는데, 이때 만사가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31세(1874) 때, 해은은 제주유배중인 면암을 찾아가 성리학 강론을 듣는다. 면암은 해은의 교유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면암은 1873년 11월에 호조참판 사직소 올리면서 5條의 항목을 아뢰었다. 이 상소는 다소 강직한 내용으로 인해 면암은 濟州에 圍籬安置의 명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 제주에 도착하였다. 제주에 도착하고는 칠성통 尹奇福<sup>10)</sup>의 집에 거처하였고, 당시 관리들이 면암을 위리안치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러다가 1875년 4월에 해배되었다. 약 1년 3개월간의 제주유배생활이었다. 이 시기 면암은 많은 安達三·金義正·姜基碩·金龍徵·金堯·金致塔·金養洙같은 제주도 인물을 만난다. 또한 본토에서 孟文浩·崔榮煥·崔勝鉉·朴海量·金孝煥·金衡培·安璣煥·李弼世등이 제주까지 면암을 찾아 왔었다.<sup>11)</sup> 면암은 그의 『南遷日記』에서 김희정에 대해 조천포에 살고 조용하고 문아하다고 적고 있다.<sup>12)</sup>

해은은 면암이 온 다음해인 1874년에 만난다. 부해 안병택은 『해은문집』 서문에서 “제주에서 면암 최익현의 제자는 해은 김선생뿐이다.”<sup>13)</sup> 라고 하여 면암과 해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제주에서 면암의 제자가 해은 뿐만은 아니지만,<sup>14)</sup> 이렇듯 단정형으로 매듭지은 것은 그만큼

10) 『심재집』, 「과환록」에는 尹圭煥의 집이라고 되어 있다.

11) 『勉菴集』, 「年譜」, “己卯, 入府內, 定館于尹奇福家. 都事及本官李必熙, 來監圍籬, 供饋等物, 自本官繼之. 先生杜門燕居, 日將朱子書, 循環誦讀, 又借校宮所儲尤菴集一帙, 潛心玩索, 頓忘湘累之苦. 島中文士如安達三·金義正·姜基碩·金龍徵·金堯·金致塔·金養洙諸人, 往來從遊. 湖西人孟文浩·崔榮煥, 湖南人崔勝鉉·朴海量·金孝煥·金衡培·安璣煥·李弼世, 皆越海來謁.”

12) 『南遷日記』, 金義正 [居朝天浦, 恬靜文雅].”

13) 『海隱文集』, 「海隱遺稿序」, “勉菴崔先生, 生乎我國季, 身百謫而不悔, 終使道學賴之不晦, 綱常賴之不墜, 萬世有辭, 殆天意非偶然. 及門之士, 散在四方, 皆尊所聞 行所知, 既淑其身. 又淑其徒, 使不晦者, 益以不晦, 不墜者, 益以不墜. 以言乎 耽羅, 則海隱金公先生是耳.”

14) 면암의 제주제자로 심재 김석익은 「破閑錄」에서 參奉 金義正과 함께 進士 金汶龍을 기록하고 있다. 『海隱文集』내에서는 洪鍾律(1862~1905)이 확인된다. 면암이 제주유배시기 많은 제주문사를 만났지만, 이들을 모두 면암의 문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은의 제자로는 金時宇(1875~1918)가 확인되는데, 김시우는

제주지역에서 해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은은 면암을 통해 화서학맥인 金平黈(1819~18914)·崔永祚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졌다.

32세(1875)에 문과초시에 합격하였고, 1879년에 문과복시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후 식년회시, 증광회시 등 7번을 치렀지만, 모두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만다. 1881년에는 서울 가는 길에 노사 기정진을 곡하였다. 해은의 교유인물 중에 노사 기정진 역시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면암은 제주에서 해배되고 돌아가면서 장성에 들러 노사 기정진을 만난다. 면암이 노사를 알게 된 것은 제주선비였던 安達三을 통해서였다. 해은은 해배명을 받은 면암을 모시고 갔고, 면암과 함께 노사를 배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은은 노사의 손자인 송사 기우만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제주에서 이렇게 여러 학맥과 관련을 맺는 인물은 해은, 소백이 있는데, 기존 제주도 지식인사에서는 없었던 현상이었다.<sup>15)</sup>

해은은 노사학맥의 제주인물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소백 안달삼과 부해 안병택을 들 수 있다. 소백 안달삼은 해은과 함께 대표적인 매계 이한우의 제자이다. 해은보다 7세가 많다. 소백과 해은은 같이 시집을 내기도 하였다.<sup>16)</sup> 소백은 30세 때(1867년) 노사 기정진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해은이 면암을 따라 배운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소백은 노사에게 배운 사항들로 면암과 토론했고, 면암은 노사와의 학문적 교감을 갖게 된다. 이후 면암은 해배된 후 장성으로 노사를 찾아가 만나게 된다. 이는 노사학맥과 화서학맥간의 역사적인 만남이며, 그 시작점이 제주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부해 안병택은 소백 안달삼의 아들이다. 안병택은 송사 기우만을 찾

후에 포천의 柳龍溪를 직접 찾아가 화서학맥을 배우게 된다. 김시우에 관한 기록은 김형식의 『革菴散稿』를 참고하였다.

15) 제주에서 안달삼을 통해 노사학맥과 화서학맥이 만나고, 이후에 활발한 교류가 펼쳐진다. 이들은 사상적으로 위정척사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의병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지금도 두 학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16) 『梅溪先生文集』, 「安行五小栢金遇卿蒲葵詩序」.



아 제주에서 전라도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안병택은 전라도 지역에서 노사학맥의 교학활동을 담당하면서, 제주인물과 본토의 학맥사이에서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였다. 김희정 역시 안병택을 통해 화서학맥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였다.<sup>17)</sup>

이 밖에 주목되는 인물은 소치 허련이 있다. 소치와의 인연은 추사와의 관계가 유력하다. 추사가 유배왔을 때 해은의 스승인 매계 이한진이 찾아가 배운 바 있다.<sup>18)</sup> 매계는 추사를 통해 소치를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추사가 해배되었을 때 해정은 나이가 5살이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사와 매계와의 인연으로 이름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후 해정이 본토를 자주 왕래하면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에는 해은이 「蹈海錄」을 작성하였다. 1885년 일본인의 魚採관계로 제주도민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난점이 많았다. 이때 조정에서 제주사람들의 명망을 받는 사람으로 해은을 추천하였다. 해은은 사건의 조사전말과 문답 등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이 바로 「蹈海錄」이다. 부해 안병택은 「海隱遺稿序」에서 “「도해록」에서는 의리를 말하여 옳은 것을 분명히 밝혔다.”<sup>19)</sup>라고 한 바 있다. 「蹈海錄」에는 崔益鉉·崔永祚·崔永高·柳基一 등의 발문이 전해지고 있어, 당시 화서학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해 10월에는 훼손된 양주 석실서원의 제향소식을 듣고는 아들 항우와 같이 참배하여 규식을 베풀고 왔고, 굴림서원의 유생과 함께 굴림서원 옛터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모습은 당시 제주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해은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다. 1895년에는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 1898년에는 제주에 유배 온 김윤식을 만난다. 김윤식은 『속음청사』에서 “은 섬이 우러르는 선비이다.”라고 하였다.<sup>20)</sup> 이후 해은은 제주도 지식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제주 지식인 사회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17) 소백 안달삼과 부해 안병택에 대해서는 김새미오의 연구가 참조된다.

18) 이에 대해서는 신촌초등학교에 있는 「매계선생유허비」에 기록이 있다.

19) 『海隱文集』, 「海隱遺稿序」. 蹈海有錄, 辭義明正.

20) 『續陰晴史』, 1898년 4월 8일조.

### Ⅲ. 해은 김희정의 문학 양상

#### 1. 화서학맥의 제주 계승

『해은문집』의 서문에서 부해 안병택이 언급했듯, 제주도에서 김희정은 화서학맥을 잇는 구한말 선비였다. 해은의 시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바로 화서학맥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해은이 유배온 면암 최익현을 만나고 지은 「奉和勉菴先生匪所韻 甲戌」이다.

數椽茅屋掩柴關 몇 개의 서까래 띠 집에서 사립문 닫고  
 盡日看書也未閒 종일 책을 보니 또한 겨를도 없었지요  
 從古賢人多忍性 예로부터 어진사람은 참을성 많다고 하던데  
 如今小子幸承顏 지금에야 제가 다행히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海聲近戶尋常聽 바닷소리는 집 가까이에서 늘 상 들려오고  
 岳色當簾咫尺攀 산 빛은 처마 끝에 손에 닿을 듯 걸렸는데  
 時止時行皆有命 때론 멈추고 때론 행하는게 천명인 것을  
 天涯何妨遠遊還 멀리 하늘가에서 노닐다간들 꺼리겠습니까<sup>21)</sup>

이 작품은 모두 3수로 되어 있는데, 인용문의 시는 첫 번째 시이다. 전반부에서는 제주 유배시에 면암의 모습과 그와 만나 기쁜 해은의 마음을 그렸다. 후반부에서는 제주 적소에서 보고 느끼는 제주의 풍광과 함께, 천명에 맡기고 제주유배 생활에 임했으면 하는 해은의 바람을 적었다. 면암의 유배생활은 독서·집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는데, 이는 집안에 보낸 간찰에도 확인된다. 면암은 특히 『우암집』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잡았다.<sup>22)</sup>

해은은 자신의 회갑 때 지은 「回甲記年」에서 면암과의 만남에 대해 “갑술년에 면암선생을 뵈고 비로소 성현을 강론할 수 있었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이해 가을 제주성 유배지에서 면암선생을 뵈고, 비로소 성리학을 들었다.”<sup>23)</sup>라고 특기하고 있다. 마지막 구절의 “天命”은 바로

21) 『海隱文集』, 「奉和勉菴先生匪所韻 甲戌」.

22) 『면암 최익현가 간찰자료』 정만호역,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0.

23) 『海隱文集』, 「回甲紀年」. 是年秋, 謁勉菴先生于州城之匪所, 始聞性理之學.”

면암에게 들은 성리학과 연결되는 어휘이다. 두 번째 시에서는 “진퇴 존망의 이치 자세히 살피려고, 복희씨의 역경인 주역을 손에 가지고 계시는 군요”라고 하고, 세 번째 시에서는 “지난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마음에 쌓인 것을 마음껏 펼쳐 보였었는데, 어느 때면 은혜를 베푸는 조서가 내려질지”<sup>24)</sup>라고 하였다. 모두 면암의 유배에 대해 “천명”으로 인식하면서, 빠른 해배를 바라는 해정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면암을 만나기 전,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 서울에 있는 전 제주목사 陸仁培(1765~1817)의 아들인 陸裕錫의 집에 거처하면서 배운 바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泗川陸氏로 남인학맥의 인물들이었다. 해은은 서울에 있는 목유석의 집에서 머물면서 과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sup>25)</sup> 하지만 해은은 다시 면암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다<sup>26)</sup>. 이는 아버지 김성휴의 충고도 있었고, 해은이 면암을 통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sup>27)</sup> 인용문의 시는 『海隱文集』 전체의 첫 번째

24) 『海隱文集』, 「奉和勉菴先生匪所韻 其二」, “細探進退存亡理, 一卷義經手自持; 「其三」. 往日封章搯素蘊, 何時恩渥降丹綸.”

25) 『海隱文集』, 「己亥仲夏到京, 訪陸參奉丈裕錫, 故宅廢爲客主家, 悵然有作」, “蓮池西畔久彷徨, 九載之間變海桑. 濟濟文朋同硯地, 紛紛賈客數錢場. 籬花已盡三盆養, 庭樹今無十尺長. 及到城中尤有甚, 許多第宅半胡洋.”

26) 본토인 경우 이처럼 학맥을 바꾸어 배우는 경우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특히 당쟁이 격화된 이후로 노론과 남인사이를 왕래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해은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라는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유교지식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맥을 따라 배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거를 위한 공부와 학문을 위한 공부에 대한 분리적 인식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해은은 면암을 만나면서 과거를 접는 모습이 확인된다. 셋째는 면암의 높은 학덕을 들 수 있다. 면암가에 소장된 간찰을 보면 제주도 유배받은 면암에게 노론과 남인학맥의 인물들 모두 위로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가 필요하다.

27) 필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은 성리학적 관점과 위정척사사상이다. 우선 성리학적 관점에 대해 보자면 제주문인 내의 첫 기록은 변경봉의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변경봉의 기록은 대부분 차기체이다. 이후 안달삼의 기록에서 노사 기정진과의 문답록에서 성리학적인 내용이 확인되며, 『해은문집』에서도 약간은 보인다. 많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지만, 제주문인들이 성리학적 담론에 대해 갈구했던 것은

시이다. 그전에 해은이 지은 작품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은이 이렇게 첫 작품으로 면암과의 만남을 특기한 것은 그만큼 해은에게 면암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암의 입장에서 제주유배는 임금이 내린 형벌이지만, 해은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였던 셈이다. 이후 해은에게 있어 면암의 영향은 절대적이었고, 면암이 해배된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수차례 직접 찾아가 뵈기도 하였다.

해은은 면암의 회갑때에도 시를 지어 올렸고, 면암은 谷雲에 놀러갔다 오고 나서는 특별히 해은에게 시를 보내어 화운하게 하였다. 抱川菴洞에서 定山 藏龜洞으로 이사할 때도 찾아갔었다. 그리고 면암이 대마도에 잡혀갔을 때는 「聞勉菴先生有東海之行」을 지어 그 슬픔을 같이하였다. 해은은 면암에 대한 만사에서 “덤불처럼 무성해져서 우리의 道가 막힐 것을 근심하여 사악한 異端의 說을 물리쳤었고, 육지에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하여 오랑캐와의 화해를 배척했었던”이라고 하며, “우리들은 이제 장차 어느 곳을 우러러야 합니까? 선생님과의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만 흥건히 흐릅니다.”라고 슬퍼하였다.<sup>28)</sup> 이런 면암과의 관계를 통해 해은은 제주도에서 화서학맥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면암을 통해 해은은 제주도에서 면암 주변의 인물들과 부단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주도에서 면암의 사상을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은 해은이 雲齋 崔永祚에게 보내는 시이다.

有氣填膺未自寬 가슴채운 기운 아직 너르지 못해  
時時拍案只長嘆 때때로 책상치며 긴 탄식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로 보이며, 해은은 면암과의 만남을 통해 이에 대한 갈등을 해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사 기정진을 만나 안달삼의 경우도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둘째, 위정척사사상인 경우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상인데, 이에 대해 해은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달삼에게서는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요구된다.

28) 『海隱文集』, 「勉菴崔先生輓」. “異域風霜夢外過, 忠魂一夜渡滄波. 憂深榛塞排邪說, 念在陸沉斥講和. 天上明光爭日月, 人間壯氣作山河. 吾徒自此將安仰, 撫事感時涕淚多.”

鯨鯢出沒江湖暗 고래가 출몰하고 물길은 암담하고  
 豹虎縱橫道路難 맹수가 증횡하여 도로도 난감하니  
 兩腋何當生羽翰 언제면 거드랑이에 날개가 생겨나서  
 一場直與吐心肝 마주하여 한바탕 속마음을 털어놓을지  
 新春適有北歸雁 마침 새봄에 북녘으로 돌아가는 기러기 있어  
 只報此身依舊安 예전처럼 잘 지낸다는 소식만 전합니다<sup>29)</sup>

雲齋 崔永祚는 면암 최익현의 장남이다. 면암이 제주도 유배시기 늘 걱정하던 두 가지는 아버지 최대의 건강과 아들 최영조의 공부였다. 최영조는 면암의 격려 등으로 화서학맥의 핵심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최영조는 흑산도 유배, 대마도 유폐의 경험을 면암과 함께한다. 최영조는 면암의 아들임과 동시에 학문적 계승자였고, 화서학맥과 노사학맥의 교류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인물이었다.<sup>30)</sup>

인용문의 시는 1894년 갑오년 동학란<sup>31)</sup> 시기의 작품이다. 전반부는 위정척사사상을 드러낸 부분이다. 고래가 출몰하는 물길과 맹수가 횡횡하는 도로는 당시 시국을 바라보는 화서학맥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이 시국에서의 안부와 함께 만나고 싶은 마음을 풀어놓았다. 이 작품 외에도 최영조와는 관계된 많은 작품이 확인되고, 최영조의 문집에서 역시 김희정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있다.<sup>32)</sup>

29) 『海隱文集』, 「述懷呈崔雲齋」.

30) 면암연보 1878년 조에 최영조가 면암을 만날 때, 노사선생을 만났는가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온다. 주지하듯 면암은 제주선비 안달삼을 통해 면암을 뵈었다. 노사와 면암의 관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영조는 이후 송사 기우만과도 관계가 계속된다. 이들 학맥간의 교류는 조선후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현재도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가 요구되는 바이다.

31) 동학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본고는 해은의 입장을 따라 “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제주인물 중 부해 안병택인 경우 역시 “난”으로 바라고 보고 있다. 당시 대표적인 위정척사파인 화서학맥·노사학맥 모두 대체로 난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32) 『雲齋先生文集』 권5. 「答金參奉義正」 정유4월1일; 「答金參奉」 계축9월 기망; 「答金參奉」 갑인11월26일; 「答金參奉」 을묘 10월29일. 문집에 실리지는 않지만, 「해은행장」 역시 운재 최영조가 작성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해은의 아들대까지는 바다를 건너 화서학맥과의 연락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과 같이 시국인식을 드러낸 곳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鬻兵』에서는 병기를 팔아 재정에 보태려는 정치행태와 병기들이 살림살이로 변해버리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서 한번 인천항을 봐 보십시오. 어디서 온 전함인지 날마다 나타났다 사라집니다.”라고 한탄하고 있다.<sup>33)</sup> 『狂犬嘆』에서는 “섬나라 일천 년 동안, 일찍이 한 마리 개도 미친 적이 없었는데, 광견병이 어디서 온 것인가? 저 서양에서 온 것이지.”라고 하며 혼란의 원인을 외부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sup>34)</sup> 해은의 이런 관점은 화서학파의 위정척사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해은문집』 내면에 흐르는 지속적인 감정이라고 하겠다.

## 2. 제주지역에서의 교학활동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향교·굴림서원·삼성사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제주 양반계층을 위한 곳이었다. 당시 유교적 지식이 부족했던 제주도는 학덕이 있는 유배인들이 올 경우 목사의 허락하에 자리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은 제주 지역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은은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 제주도 내의 교학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는 삼천서당이나 굴림서원 등에 관한 해은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다음은 삼천서당에 관한 해은의 작품인 「蘆峯金公興學碑」이다.

大設黉堂乃立師 서당을 크게 짓고 스승을 세우니  
 蘆峯心力盡於斯 노봉의 마음 씀이 여기에 다했네  
 後人欲識興儒化 유학을 일으킨 교화 알자고 한다면  
 看取蒼岩一片碑 푸르른 한 조각 빗돌에서 취할지니<sup>35)</sup>

33) 『海隱文集』, 「鬻兵」. “鬻兵補用是誰謀, 令下諸州取次收. 刁斗成盤歸富, 戈矛化銍入田疇. 聖朝不念秦家戒, 志士空懷杞國憂. 君去試看仁港口, 何來戰艦日沈浮.”

34) 『海隱文集』, 「狂犬嘆」. “海上千年國, 曾無一犬狂. 狂疾自何來, 來自彼西洋(후략).”

35) 『海隱文集』, 「蘆峯金公興學碑」. “蘆峯諱錠知州時, 創建三泉書堂, 遂置田畝及贍學錢, 以爲養士之資. 泉石橋壁多所品題, 舊享于橋林書院東鄉賢祠, 中間撤廢. 余倡論于翁章甫, 爲立興學碑.”

이 시에는 “노봉 휘 정이 제주 목사 때 삼천서당을 창건하여 전답과 섬학전을 마련해 두고 선비를 양성하는 밀천으로 삼게 했다. 샘과 돌, 다리, 벼랑에 대해 그가 품제한 것이 많았다. 예전에는 굴림서원 동편의 향현사에 모셔 제향했는데, 중간에 철폐되었다. 내가 여러 유생들에게 의견을 먼저 내어 흥학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소주가 있다.

삼천서당은 제주시 동문로타리 동쪽지역에 있었다. 해은이 삼천서당에서 학습할 때에도 황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화 「초공본풀이」 등에서도 삼천서당에 배우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당시 삼천서당의 교육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노봉 김정은 삼천서당을 건립하면서 주위 경관에 대해서 많은 銘을 남기기도 하였다.<sup>36)</sup> 蘆峰興學碑는 삼천서당을 세운 노봉의 교학활동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비석은 1957년 서당이 헐리게 되면서 지금은 오현단에 옮겨져 있는 상태이다.<sup>37)</sup>

삼천서당을 통해서 신상흠·이한진등의 대표적인 제주도 지식인으로 성장하였다. 해은이 어렸을 적 배운 윤규관도 삼천서당 훈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 朴升奎·李基瑢·愼栽雲 등이 삼천서당 출신으로 해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해은 역시 삼천서당에서 같이 배웠던 인물들을 “同社”라고 칭하면서 매우 친근한 감정을 표현한 바 있다.<sup>38)</sup>

하지만, 해은은 당시 목사였던, 목사 朴善陽이 『易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는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삼천서당을 떠난다. 『易言』은 1871년 청나라 鄭觀應(陶齋, 1841~1923)이 간행한 서적으로,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통의 것을 지킨다는 東道西器의 사상을 담고 있다. 그 중요성으로 언해까지 된 서적이었다. 하지만 위정척사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해은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의 내용은 노봉흥학비를 세우면서, 삼천서당을 설립한 노봉 김정의

36) 『蘆峯文集』, 김정 저,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3.

37)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蘆峰興學碑 “記 先生諱己政, 英廟乙卯莅州, 有清德以興學爲己任, 創三泉齋. 凡水石品題, 皆手澤也. 嗚呼, 先生丁巳九月三日, 卒于禾北館, 追享永惠祠, 辛未撤祀. 後癸巳爰豎短碣, 以寓追慕, 距乙卯一百五十九年, 十月日也.”

38) 『海隱文集』, 「送金五衛將汶株之京」. “早年投筆卽成名, 一帆春風向洛城. 得路良驥須展步, 出鞘寶劍自雄鳴. 知君立志羞懷印, 爲我快心願請纓. 同社親朋如有問, 只言華髮病中生.”

공적을 찬양하고 기리는 것이다. 『易言』으로 삼천서당을 떠난 해은이었지만, 노봉흥학비를 세운 것은 제주도에 있는 교학기관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 전통의 것을 지키면서 후대에 전해주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드러내었다. 이는 제주교육의 주체로 제주사람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당시 제주지식인의 리더로서의 해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해은의 이런 모습은 굴림서원에 관한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음 시는 「橘林書院遺址 設壇 享五先生」이다.

橘院遺虛綠草肥 굴림서원 옛터에 푸른 풀이 무성하니  
 後生何處可依歸 후생들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 의지하리까  
 年年一度壇前拜 해마다 한 번 단 앞에서 절을 올림은  
 愛禮存羊殆庶幾 예를 아껴서 형식을 보존하기 위함이지요.<sup>39)</sup>

이 시는 해은에 굴림서원 터에 단을 설치하고 제주 오현에 제사를 지내고 지은 작품이다. 굴림서원은 제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지만, 대원군 집권기 서원훼철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서원훼철령은 당시 유림으로서 큰 고민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서원은 교육기능은 물론 배향을 통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시는 주석에서 제향지내는 형식은 양주의 石室書院의 예에 따랐고, 당시 서울에 있었던 해은은 아들 恒裕와 함께 참배하고, 석실서원의 通狀·規式을 베껴서 굴림서원 여러 유생들에게 올렸고, 이에 李基瑢(1840~1899)이 의론을 주장하여 성사된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sup>40)</sup> 石室書院은 김상용·김상헌을 배향했다가 후에 안동김씨가 배향되어 1868년 대원군 시절에 훼철되었다. 이후 안동김씨 중심으로 다시 배향을 했고, 그 의식을 해은이 보고 굴림서원의 의례에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9) 『海隱文集』, 「橘林書院遺址設壇 享五先生」.

40) 『海隱文集』, 「橘林書院遺址設壇 享五先生」. “辛卯十月, 余在洛館, 聞楊州石室書院遺址, 有壇享之會. 遂與家兒恒裕趁參, 謄其通狀及規式, 歸獻橘院僉章甫. 時李基瑢力主其議, 遂設壇享之.”



해은은 「회갑기년」에도 이 사실을 특기했고,<sup>41)</sup> 梧堂 俞鳳在에게 보낸 편지에도 “저희 굴림서원은 한 번 그 통문을 읽어보고는 奮然히 일어나서 기쁘게 따라 돌을 쌓아 단을 만들어 단에 제사하는 의식을 한결같이 석실서원의 격식에 맞게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로 인해서 더불어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sup>42)</sup>라고 하여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이기용의 만사에서 오현단에서의 제향에 대해 특기하고 있다.<sup>43)</sup> 하지만 교육기능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 경우는 경제적인 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배향인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로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론을 만들 수 있었다. 또 이를 통해 유교사회를 유지하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은이 석실서원까지 찾아가 그 예식을 확인하고, 제주 굴림서원에서 이를 행한 것은 기존 지방교육체제에 대한 관심과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 지식인들이 해은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은의 이런 면모는 문집 곳곳에서 확인된다. 해은은 「擬分面設學稟目」에서는 “신좌면(조천)에 훈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鄉校不當設新學校稟目」은 향교에 신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특히 「鄉校不當設新學校稟目」에서는 “공자의 학문은 공자의 학문이고, 일본의 학문은 일본의 학문이며, 서양의 학문은 서양의 학문일 뿐입니다. 섞어 하나의 같은 道로 삼아 후생들에게 아울러 나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sup>44)</sup>라고 하면서 향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해은의 이런 요구는 물론 향교의 유교 교육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41) 『海隱文集』, 「回甲紀年」. “十月旣望後, 尋師到抱川. 雲潭遠講討, 石室參吉鑄. 歸享橘林墟, 一酌一豆籩.”

42) 『海隱文集』, 「與俞梧堂鳳在 壬辰十月」.

43) 『海隱文集』, 「李道吾基塔輓」.

44) 『海隱文集』, 「擬分面設學稟目」.

『海隱文集』, 「鄉校不當設新學校稟目」. “然若論其學, 則孔夫子之學, 自孔夫子之學; 日本之學, 自日本之學; 西洋之學, 自西洋之學, 不可混爲一道而使後生並進也.”

### 3. 제주자연의 형상화

제주자연은 예로부터 문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제주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주문인들이 제주에 관한 문장이 많다고도 할 수 없다. 조선시대 제주문화가 유교로 젖어든 시기가 본토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海隱文集』 서문에서 부해 안병택은 “한라산 등산기에서는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을 높이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해은의 한라산 등산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해은의 「한라산기」 일부이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듬어 생각하니 흥은 다하고 서글픔이 찾아왔다. 가슴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하되 길이 험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마음속으로 산신령에게 말하길 ‘불행하게도 멀리 궁벽하고 누추한 지방에 있어 현인과 군자의 유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변화한 곳에 있지 않아서 때 묻은 속세 사람들의 왕래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행과 불행이 산의 形勝을 덜거나 보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어르신들에게 들으니 한번은 異樣船이 바다를 지나가니 산에서 바람에 크게 일어 파도가 세차게 솟구쳐 감히 해변에 접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신령님의 영험이 예와 오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운수에 구애 받는 것입니까? 이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바위 사이에 살고 싶지만 火田이 척박하여 어버이를 섬길 방법이 없고, 돌아가고 싶지만 비릿한 먼지가 덮고 가리어 멩에를 풀어 설 곳이 없습니다. 한 걸음을 띄고는 머뭇거리고 세 걸음을 띄고는 배회하며 차마 떠날 수가 없을 뿐입니다.’<sup>45)</sup>

해은은 그의 나이 52세였던 1895년에 한라산을 올랐다. 해은은 성관약을 통해 백록담까지 갔다. 성관약으로 한라산을 오르는 길은 예전부터

45) 『海隱先生文集』, 「遊漢拏山記」. “撫念時事, 興盡悲來, 拊膺長嘆, 不在路險. 因心告於山靈曰, ‘不幸而遠在於僻陋之鄉, 未有賢人君子之遊覽, 亦幸而不在於繁華之場, 得免塵人俗客之往來. 其幸不幸無足損益於山之形勝也. 嘗聞故老之言, 一有異樣船過於海上, 則山風大作, 波濤洶湧, 不敢近邊. 今也則不然, 豈仙靈有古今之異歟? 抑爲氣數所拘歟? 是未可知也. 欲棲岩, 而火田瘠薄, 無養親之道, 欲復路, 而塵塵蔽塞, 無稅駕之地. 一步躑躅, 三步徘徊, 忍而不能去而已.’”

사용되었겠지만, 기록상으로 이 코스를 이용하여 오른 것은 해은의 경우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람으로 한라산 정상을 오른 최초의 기록이다.

해은이 한라산에 와서 ‘흥이 다하고 슬픔이 오는 것’을 느낀 이유는 바로 당시의 시대상황 때문이었다. 해은이 한라산에 오른 1895년은 청일전쟁이 있었던 해이다. 바로 한 해 전에는 동학운동이 있어서 삼남지역에서 한차례 요동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통제할 힘도 없었다. 해은인들 어쩔 수 있었겠는가? 이에 해은은 문학적 상상력을 이용하여 영험한 산신령을 내세운 것이었다.<sup>46)</sup>

해은은 신선처럼 산에서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렇기에 백록담 근처에서 서성이고 배회한 것이었다. 백록담에서의 배회는 바로 당시 제주도 지식인은 물론 보편적인 조선 지식인들의 고뇌를 대변하고 있다.

면암은 그의 「漢拏山記」에서 한라산을 “무릇 한 점 탄환같은 외로운 섬이지만, 큰 바다의 기둥이며 삼천리 강산을 지키는 문이다. 이에 왜구들이 감히 엿보지 못한다.”<sup>47)</sup>라고 표현한 바 있다. 면암은 한라산을 나라의 문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로 표현했는데, 해은 역시 산신령 통해 그 인식을 이어가고 있다. 후에 일제시대 한라산을 올랐던 이은상의 「한라산기」에서도 이런 인식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한라산기는 당시 시대 상황과 밀접히 연결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해은의 「한라산기」와 더불어 「漢拏雜詠」도 주목된다. 「漢拏雜詠」은 「道理石室」·「通怪石室」·「鹿潭」·「怪石」·「鳩桑木」·「紫檀香」·「白灼藥」·

46) 해은이 「한라산기」에서 산신령을 내세운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해은은 철저히 유교적 교육을 받았고, 유교적인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그의 내면적인 인식에 ‘산신령’이 있다는 것은 당시 제주도 무속문화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모습은 이전 세대 제주도 인물인 변경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제주지식인들의 이중적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47) 『勉庵集』 권20, 「遊漢拏山記」. “夫以彈丸孤島, 砥柱大海, 在邦爲三千里水口捍門, 外寇不敢伺.”

48) 이 부분은 줄고(문학작품속에 표현된 한라산-한라산유기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변용·발췌했음을 밝힌다.

「杜鵑花」·「當歸」·「韭菜」·「瀛洲實」·「苦竹林」·「丁公杖」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은이 한라산에 오르면서 본 여러 식물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문학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문학사에서 雜詠의 형태가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국적인 풍물과 색다른 풍속에 집중하였다. 해은처럼 제주의 식물에 집중하면서 세밀한 묘사를 한 경우는 처음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본토문인들과는 차별되는 해은만의 양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해은이 지은 영주십경시 중에서 첫 번째 시인 「城山出日」이다.

巨石撐空自作城 하늘을 떠받친 거대한 石城에 올라  
 俯看海旭放新晴 맑게 개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 굽어보니  
 隨濤蕩漾雙輪轉 물결 따라 출렁이며 雙輪이 구르고  
 含火蜿蜒百怪生 불을 머금고 굽들대며 온갖 괴이함을 낳는데  
 下界點烟昏欲破 어둠이 가시는 점 같은 아랫마을엔  
 孤村數屋寂無聲 외진 시골 몇몇 집은 소리도 없이 고요한데  
 金鷄叫罷陽鳥起 금계가 울고 나니 태양은 솟아올라  
 及到三竿始大明 장대 세 개 높이에 이르러 환하게 밝힌다네

영주십경은 제주에서 경관이 뛰어난 10곳을 말한다. 제주 경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품제하며 전해지다가, 매계 이한진 때에 10경을 만들고 이에 시를 지어 품제하면서 지금의 영주십경이 되었다.

인용문에서 해은은 성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느끼는 장엄한 광경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였다. 이 시의 원제목은 “매계 이한진 선생의 영주십경의 운을 따라 짓고 卿華에게 드리다<sup>49)</sup>”이다. 매계 이한진은 전술했듯 제주 신촌에 거주하였고, 해은의 스승이었다. 매계의 영주십경은 주변 문인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은 역시 이한진의 시에 화운을 했고, 이에 멈추지 않고 시의 제목처럼 타인에게도 화운을 부탁하였다. 卿華는 강진사람<sup>50)</sup>이라는 정보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이와 같은 해은의 문학 활동은 스승인 이한진의 문학적

49) 『海隱文集』, 「謹次梅溪李先生漢震瀛洲十景韻 兼呈卿華」.

50) 『海隱文集』, 「和康津李斯文卿華 二首」.

계승과 확대를 의미한다.

#### IV. 결론

지금까지 해은 김희정의 삶과 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은 김희정은 제주도 조천에서 태어난 구한말 제주지식인이었다. 그의 집안은 이속층이었지만, 제주도 유림으로 성장하였다. 해은의 아버지인 김성휴는 학계의 유사를 맡는 등의 제주 지식층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성휴는 해은의 교육에 있어서도 과거 공부보다는 진정한 스승을 찾아 배울 것을 충고했었다. 이런 아버지 김성휴의 가르침은 후에 면암 최익현을 만날 수 있는 힘이 된다.

해은은 어려서 당시 제주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매계 이한우, 윤규관 등을 따라 배웠다. 제주에 있으면서 해은은 소과는 합격하였고, 이어 서울 목유석의 집에 머물면서 대과를 준비했다. 하지만 결국 과거와는 인연을 맺지 못한다. 그러다가 제주도로 유배온 면암 최익현을 만나면서 해은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 해은은 면암 최익현에게서 성리학 등의 강론을 배웠고, 이후 ‘화서-면암’의 학통을 계승한다. 이후 해은은 제주도에서 화서학맥을 계승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해은 문학의 특징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면암 최익현을 만나 제주에서 화서학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은은 서울에서 남인학맥의 목유석을 만나면서 남인학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은은 최익현을 통해 화서학맥의 위정척사사상을 받아들인다. 아직까지 제주도 지식인 중에서 해은처럼 학맥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화서학맥과 노사학맥의 경우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주 교학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말기로 오면서 제주도의 삼천서당·굴림서원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해은은 이런 사실에 아쉬워했고, 어떻게든 이들 교육기관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삼천서당에 노봉홍학비를 세운 것이나, 오현단에서 오현에 대해 제사를 지낸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은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제주 지식인이 해은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당시 제주 사회의 사표이자 리더로서 해은이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주 지식인의 계보를 심재 김석익의 견해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사람에 의한 교학활동이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유배인을 중심 교학활동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주자연에 대한 형상화를 들 수 있다. 제주 자연에 대해서는 많은 문인들이 품제한 바 있다. 해은의 품제는 제주 사람이 직접 읊었다는 것 외에도 전대의 문학적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은의 「한라산기」는 한라산을 오르는 흥과 함께 당시 암울한 시대상황이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면암 최익현의 「한라산기」를 문학적으로 계승하는 성격을 지닌다. 해은의 「영주십경」은 매계 이한우의 문학을 계승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제주지식인들끼리 이어지는 문학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라잡영」인 경우는 해은이 한라산을 오르면서 보이는 여러 식물들에 대해서 읊었다. 제주문학에서 잡영의 형태는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 제주도의 풍속과 문화에 집중하였다. 해은처럼 제주에 있는 식물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를 형상화한 경우는 해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은의 삶과 문학을 살펴보면 필자가 느끼는 아쉬운 점을 토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지식인 계보에 관련된 사항이다. 해은을 연구하면서 화서학맥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 이후의 계승관계는 조금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에서 계보를 만들기는 했지만, 개연성에 의한 것일 뿐 문헌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구한말 제주도는 노사학맥, 화서학맥, 간재학맥이 모두 있었다. 현재 노사학맥과 화서학맥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되고 있지만, 간재학맥이 어떻게 제주도와 연결되고 있는지는 문헌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상태이다. 또 이들 학맥간에 어떤 교류를 갖는지도 심도있게 접근해야할 사항들이다. 셋째, 제주학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이 예전에도 없지는 않았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주 자료를 종합하고 이를 정리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차례차례 해결된다면, 해은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제주학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1. 저서

- 『해은선생문집』, 김희정 저, 백규상역, 제주문화원, 2015.
- 『고문서집성』 110, 「제주고문서\_조천김해김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면암집』, 최익현 저, 한국문집총간 325.
- 『운재집』, 최영조 저, 역대문집총서 2883·2884.
- 『부해문집(상)·(하)』, 안병택 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심재집』, 김석익 저, 제주문화, 1991.
- 『小栢處士遺稿』, 문중소장.
- 『제가음영집』, 제주자연사박물관 소장.
- 『부해문집』 (1~4), 안병택 저, 오문복역, 제주문화원. 2008~2015.
- 『매계선생문집』, 이한진 저, 김영길역, 제주교육박물관, 2016.
- 『면암 최익현가 간찰자료』, 정만호역,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0.
- 『속음청사』,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1996.
- 『蘆峯文集』, 김정 저,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3.
-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 \_\_\_\_\_,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 \_\_\_\_\_, 『제주향일인사실기』, 북제주군문화원, 2005.

## 2. 연구논문

-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 일고」,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7.
- \_\_\_\_\_, 「문학작품속에 표현된 한라산-한라산유기를 중심으로」, 국립제주박물관, 2012.
- \_\_\_\_\_, 「구한말 제주 문인 부해 안병택의 삶과 교섭」, 『한국한문학회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 \_\_\_\_\_, 「浮海 安秉宅의 문학과 한시 소고」,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2015.
- \_\_\_\_\_, 「소백 안달삼의 교유와 그 의미」, 『탐라문화』 51, 탐라문화연구소, 2016.



- 김일우,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 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낯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소재영, 「濟州文學의 定立;漢文學과 濟州文學」, 『탐라문화』 15, 탐라문화연구소, 1995.
- 양진건·강동호,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서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35, 한국교육사학회, 2013.
- \_\_\_\_\_,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논총』 35, 인문과학연구소, 2014.
- 강동호·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濟州學統 연구」, 『탐라문화』 48, 탐라문화연구소, 2015.
- 양진건,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한국교육사학』 24, 한국교육사학회, 2002.
- \_\_\_\_\_,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5, 한국교육사학회, 2003.
- \_\_\_\_\_, 「朝鮮後期 濟州教育에 끼친 斥邪論議의 影響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교육사상연구』 20,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 양진건·김성태, 「우암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석당논총』 59, 석당학술원, 2014.
- 이병찬·박우훈, 「대마도일기 수창시 연구-최익현. 임병찬. 홍주의사 구인의 수창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2004.

Abstract

## The life and literature of scholar Haeun Kim Hee-Jeong born in Jeju island

Kim, Sae-Mio\*

This work looks into the life and literature of scholar Haeun Kim Hee-Jeong, native to Jeju. Haeun was born in Chocheon, Jeju Island in the late 19th century of Chosun dynasty. The social location of his family initially belonged to the category of Isok (lower managerial administrative class during the Chosun period); and later climbed up to the Confucius scholar class. Haeun learned from many people in Jeju Island. Later on, he learned Seongri Confucius teachings and the thoughts Wijung Chuksa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from Myunam Choi Ik-Hyun who was exiled to Jeju Island; and finally grew into a central figure for succeeding the scholarly lineage of Hwaseo-Myunam.

We can find three characters from the literature of Haeun. Firstly, he succeeded the scholarly lineage of Hwaseo through his meeting Myunam Choi Ik-Hyun in Jeju.

I have so far identified that Hwaseo and Nosa School are only those whose scholarly lineage is succeeded by a scholarly figure such as Haeun.

Secondly, he was actively participated in teaching activities in Jeju. Approaching the end of Chosun period, the longstanding educational

---

\* Researcher in Taedong Institute of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ions such as samcheon seodang and gullim seowon did not play well their due role. Haeun revitalized the role by establishing the scholarly statue of nobongheung and by observing Confucius ceremonies for Ohyun (five confucius scholars) at the altar of Ohyun. This all indicates that Haeun was the example and leader in Jeju society. This is also significant that the teaching activities were made by a Jeju Island native. This kind of academic activities is clearly different from what was made by those exile to Jeju Island.

Thirdly, Haeun tried to describe and appreciate the Jeju Island' nature in his writings. Haeun's manuscript, climbing Halla Mt well described both the uplifting mood of climbing Halla mt and dark socio-political situations at those times. His writing holds a character for succeeding the Myunam Choi-Ik Hyun's writing of Climbing Halla. Haeun's writing of Youngjushipkyung (meaning, ten beautiful sceneries of Jeju) holds its significance in succeeding the literature of Maegyeo Lee Han-Woo. Numerous writers had appreciated the nature of Jeju Island in many different ways in their literature. The appreciation of Haeun for Jeju Island's nature is characterized in that it is made by a Jeju Island born writer and it develops further achievement in the literature.

Key Words : Haeun Kim Hee-Jeong, Myunam Choi Ik-Hyun, Ten beautiful sceneries of Jeju (Youngjushipkyung), Jeju's five confucius scholars(ohhyun).

**교신 : 김새미오**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kimsaemi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11. 07.

심사완료일 2017. 01. 30.

게재확정일 2017. 02. 07